**난류 산장**

<표>

**하쿠산국립공원**

**난류 산장**

**하쿠산 등산 시 추천 거점**

**소박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산장**

난류 산장은 하쿠산 내 가장 높은 봉우리의 바로 남쪽에 있는 완만하고 움푹 팬 땅, 미나미류가반바의 해발 2,080m 지점에 있습니다. 하쿠산의 최고봉인 고젠가미네(2,702m)나, 남쪽 방향의 벳산(2,399m)에 오르기 전, 많은 등산객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산 중턱에 있기에 고산병 등에 걸릴 위험도 적어 어린이나 초보 등산객분들도 안심하고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장 외에 근처에는 미나미류가반바 비지터 센터, 미나미류가반바 캠프장(하쿠산에서 유일한 지정 텐트 캠프장),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라이빗 캐빈이 있습니다.

난류 산장의 성수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입니다. 특히 주말은 혼잡합니다. 숙박 시설의 계획, 예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고, 가능하면 주말은 피합시다

하쿠산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쓰레기는 모두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반드시 등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등산 시에는 헬멧을 착용해주십시오.

텐트 지역은 100개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주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미류가반바 캐빈은 1객실에 정원 5명 이용하실 수 있는 대여 오두막집으로, 넓이는 4평(13㎡) 정도입니다. 전체 5동이며 개인실 10개가 있습니다.

침대는 칸막이가 없는 이층 침대입니다. 또한 다다미방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류 산장은 비데가 포함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성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난류 산장 주변에는 많은 고산식물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난류 산장**

영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원： 150명

<뒷면>

<알프스 전망대 지도, 원문>

**일출을 볼 때 팁**

<사진 설명>

알프스 전망대에서 보는 일출

알프스 전망대는 난류 산장에서 전망 보도를 1시간 정도 걸으면 나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등산객이 일출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출을 본 후 1시간 더 걸으면 무로도에 도착합니다. 무로도에서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산 정상을 향해 갑시다. (도시락을 주문해서 등산길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망 보도, 돈비이와 코스, 에코 라인에서 하산하시는 분은 난류 산장 부근을 지나갑니다. 고젠가미네에 오르기 전에 불필요한 짐을 산장에 맡기고, 하산 도중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